



5월 12일 (월)

아침부터 카드 값 결제 하느라 머리가 아프다.
한달에 두 번씩... ㅠ.ㅠ

회사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항상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지...
이런 처지가 화가나서 미치겠다가고 어쩔 도리 없음을 아니까
또 체념을 하고 살아간다.

내일은 작은 아이 학교 급식 점검을 하러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야한다.
피곤도 하고...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감에 일찍 잠에 들었다.

“엄마, 일어나! 엄마~~, ” 큰 애가 열심히 깨우는 바람에 살짝 잠에서 깨긴 했지만 일어나
기 귀찮아서 그냥 자는 척 했다.

“아빠! 엄마는 결혼 기념일인 거 모르나봐. 그냥 자는데~”
“엄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끼리 케익 먹자.”

우왕~~ 대박!!

오늘이 결혼 기념일인 것이다.

이 남자.... 결혼해서 지금까지 항상 결혼기념일을 챙긴다. 17년째....

기념일에 무심한 나는 항상 내 생일, 결혼 기념일 뭐.. 이런거 잘 안 챙긴다. 생각도 못할때
가 더 많다. 물론 가족들은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며 챙기지만...

17년을 살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 남자의 이런 자상한 면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아
올 수 있었던거 같아 새삼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.

내일은 미안한 맘을 담아 문자도 보내야 겠네...



“지은아빠 항상 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모습을 보여 줘서 고마워.

<= 특별히 예쁘고 큰 내 사과를 받아줘! ”